

在美 千餘科學者

## 母國의 「과학진흥」 위해

### 「韓國科學技術者協會」創立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친목도모와 조국의 과학기술, 산업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지난 12月 11일 「워싱턴」의 「원저·파크」 「호텔」에서 가진 사단법인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회장 金舜敬 박사)의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미주각지에서 모인 우리나라 출신의 저명한 과학기술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을 본 이 협회는 「非政治·非營利·自律性」등 3개항의 기본운영방침을 내걸고 있는데, 미주지역의 1천4백여명의 한국출신 과학기술자들이 유기적인 연락기관이 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어느 때 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는 모국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봉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처는 협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72년도 예산에 1,240만원을 책정했다. 협회는 ① 회원상호간의 학술, 기술교류 등의 협조 ② 본국의 과학기술진흥과 경제개발사업의 효율적수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例, 개인 또는 팀으로 타스크포스 참여) ③ 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평가와 조언 ④ 본국의 학회,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정부관계기관에 대한 연구협조, 최신과학 및 산업기술정보의 제

공, 알선과 후진(유학 또는 연수생)에 대한 지도와 자문 ⑤ 해외 한국과학기술자 귀국유치활동사업의 인선, 외국저명 과학기술자의 본국초빙알선 ⑥ 미주지역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지원과 상호협력관계 조성, 알선등을 사업목표로 세우고 있다.

협회는 작년 6월 일시 귀국했던 과학기술관계 증진인사 10여명(李泰圭·金舜敬·李基億·金榮培·朴達祚·梁岡·金玩熙 박사 등)과 과학기술처가 협의했던 정보관리기관을 미주에 파견, 현지 대사관을 통해 재미기술자들과 협의 창립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 협회의 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일부참석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金舜敬(텔플대교수·화학) ◇ 부회장단=李基億(마이트대학 부교수·물리) 金玩熙(컬럼비아대교수·전자공학) 金榮培 盧俊熙(캘리포니아대학제트추진연구소·생화학) ◇ 간사장=金浩吉(메릴랜드대학부교수·물리) ◇ 총무간사=朴濶楨(메릴랜드대학조교수·컴퓨터) 李貞默(미해군연구소·조선공학) ◇ 편집간사=李鍾三(가톨릭대학부교수·전자공학) △ 일부 참석자명단 △ 林德相(펜실베이니아대교수·수학) △ 李輝昭(뉴욕대교수·

물리) △ 張翹(가톨릭대교수·육체역학) △ 全啓相(보잉회사·연구원) △ 鄭연훈(인터내셔널·오토머틱·머신연구원) △ 李林學(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교수·수학) △ 高光國(ESSO 연구본부연구원·화학) △ 金根泳(몬산토사 연구원·화학) △ 金明煥(코넬대교수·전자공학) △ 김연수(스탠더드·오일사선임기사·지구물리) △ 김옥동(쿠퍼대교수·토목공학) △ 金有聲(벨연구소기사) △ 김장호(커티커트·레즈먼트연구소연구원) △ 金貞勳(스티븐스공대부교수·선박운동) △ 朴達祚(콜로라도대교수·화학) △ 朴在泳(노드캐럴라이나대학 부교수·물리학) △ 육영일(듀폰사연구원) △ 서남표(MIT 부교수·기계공학) △ 서정하(콜로라도대교수·공학설계과장) △ 유열(위스콘신 대학 부교수·화학) △ 李勝基(후커화학회사연구원·화학) △ 李鐘振(AMF 회사시스템책임자·기계공학) △ 이태섭(월개발회사연구원) △ 李海燮(펜실베이니아주립대교수·전자공학) △ 張惠媛(컬럼비아대 연구원·화학) △ 진원영(서니대교수·핵공학) △ 崔相一(노드캐럴라이나대학부교수·물리학) △ 최순달(제트추진연구소연구원) △ 威仁英



◇ 과학기술처는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장기 유치하기 위해 69년 8월 21일 서울 코리아하우스에서 리쉴슨을 열고 유치방안에 대해 의견의 교환을 했다. 사진은 리쉴슨에 참가한 재외과학자와 국내 과학자와의 기념 촬영.